



식약처,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

- 제수용·선물용 식품 제조·조리·판매 업체 등 약 3,607여 곳 집중점검
- 농·축수산물,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(약 1,740건)과 수입통관(36품목) 검사 강화
-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, 회수·폐기 등 조치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·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, 만두, 한과, 청주, 건강기능식품(홍삼 등), 축산물(포장육 등)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,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.

주요 점검 내용은 ▲무등록(신고) 제조·판매 ▲소비(유통)기한 경과제품 사용·판매 ▲건강진단 실시 ▲냉장·냉동온도 기준 준수 ▲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.

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·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(국내 유통)와 통관단계(수입식품)에서 검사를 강화한다.

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·한과·전통주·고사리·참돔·포장육·건강기능식품 등 1,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, 중금속,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.

통관단계 수입식품*에 대해서는 ▲과채가공품(삶은 고사리 등)·식물성유지류(대두유, 참기름 등)·건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(15품목) ▲간도라지·간밤·양념육·명태·새우 등 농·축·수산물(18품목) ▲비타민·무기질 보충용 제품, EPA·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(3품목)을 대상으로 중금속,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**를 실시한다.

* 수입통관단계 검사 기간 : 2024.1.15.~2.2.

** 납, 카드뮴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, 총 아플라톡신, 벤조피렌, 이산화황 등

참고로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,837곳 중 76곳 (1.3%)을 적발했으며,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, 축산물분야에서는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.

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,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·폐기(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)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*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,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'내손안'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

담당 부서 <총괄>	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동희 (043-719-2051)
		담당자	사무관	이 성 (043-719-2054)
<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>	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영희 (043-719-2451)
		담당자	사무관	임락중 (043-719-2452)
<수입식품 통관 단계 안전관리>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	책임자	과 장	마정애 (043-719-2201)
		담당자	사무관	유행일 (043-719-2210)
<수입식품 유통 단계 안전관리>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	책임자	과 장	임창근 (043-719-6251)
		담당자	사무관	유선영 (043-719-6257)
<축산물 안전관리>	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성일 (043-719-3240)
		담당자	사무관	설찬구 (043-719-3253)
<농·수산물 안전관리>	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 규 (043-719-3203)
		담당자	사무관	신충훈 (043-719-3205)